

1) 해안·해역의 지형과 지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해안선의 길이는 1만 7269km에 달하며 그 중에서 본토는 동해안 1,727km, 서해안 2,245km, 남해안 4,719km이고, 나머지는 도서부분이다. 그러나 산업발달에 따라 해안지역을 개발·이용하는 범위가 커져 자연이 파괴되고 있으며, 공단건설로 폐기물의 해역유입이 증가해 해역생물의 서식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곧 자원의 손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환경부의 『86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교적 서해보다는 남해의 동쪽에 인공개변이 현저하고 도서보다는 육지연안의 개변과 이용상황이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안상황도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해안지형은 육지연안해역이며 침강과 침식으로 만들어진 크고 작은 만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성포는 광양만에, 세포와 화포는 순천만에 넓은 조간대의 평지가 발달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조간대 진흙은 창조류에 세립질 부유퇴적물이 운반되어 낙조류 때에 퇴적된 것이다. 근접한 도서와 섬진강 유역의 고흥연안에서 기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성포와 순천만의 안풍지역은 돌체의 제방을 축조하거나 농경지로 매립하는 등 인공해안으로 개변되었다. 앞으로 신성포 해안은 울촌공단 조성으로 시가지와 공업지로 매립·개변되었을 때 자연해안생태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신성포는 순천에서 남동으로 10km 거리에 있는 돌출해안이다. 해안선의 길이 2km, 조차 3.0m, 조류속도 1.6의 침식퇴적해안이며 자연해안이 20%, 인공해안이 80%를 차지한다. 현재 농경지로 90%, 기타 10%로 활용하고 있다. 화포는 순천에서 남서 12km 떨어져 있는 돌출해안으로 해안선 길이 2km, 조차 3.5m, 조류속도 1.0의 침식퇴적 해안으로 자연해안 8.5km는 양식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농업지가 10%, 시가 및 공업지가 10%이다. 순천만 일대의 해안과 해역생태계 전반에 걸쳐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